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리며, 2025년 9월 저희 가정의 소식과 기도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 +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 곳 이스라엘은 9월 23일, 5786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여호와와 절기로 나팔절이라고 불립니다.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며, 곧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로 이어짐으로 하나님 나라 구속사의 클라이막스로 나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연속되어지는 절기들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계시되어 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16,17

여호와와 가을 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로 이어집니다. 이 절기들은 단순한 종교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삶 전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중요한 영적 여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구속사의 완성을 바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51-52

이러한 가을 절기의 준비는 한 달 전, 즉 엘룰월부터 시작됩니다. 엘룰월은 유대력으로 여섯째 달로, 나팔절(티쉬리월 1일)과 속죄일(티쉬리월 10일)을 맞이하기 위해 정해진 회개와 준비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약 40일 동안을 특별히 회개의 기간으로 삼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회개는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 이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 40일간 머물렀던 것에 기원을 둡니다. 모세는 엘룰월 첫날에 산에 올라가 티쉬리월 10일, 곧

속죄일에 내려왔습니다. 이는 백성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주어진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엘룰월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상징적인 기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아침 예배 후에 매일 쇼파르(양각 나팔)를 불었습니다. 쇼파르의 울림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무감각해진 심령을 흔들며 회개로 이끄는 영적 신호였습니다. 또한 엘룰월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용서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해와 회복을 이루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티쉬리월 첫째 날, 곧 나팔절은 히브리어로 욥테루아라고 하며, 이날은 하루 종일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심판을 상기하는데, 마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날과 같이 여겨집니다. 나팔의 울림은 사람들을 흔들며 깨어 있게 만들고, 다가올 속죄일을 준비하도록 촉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테살로니가전서 4:16-17

나팔절로부터 열흘 뒤에 맞이하는 속죄일, 곧 욥키푸르는 유대인의 달력에서 가장 거룩한 날로 여겨집니다. 이 열흘은 ‘경외의 날들’이라 불리며, 나팔절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고 철저히 성찰하는 시간으로 주어집니다. 나팔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경고이자 은혜의 부르심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회개의 도구가 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찢은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 12:10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회개로

주님께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며, 저주하며,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던 유대 민족이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통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맞이하게 될 초막절, 주님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거하며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제목

### 두 국가 해법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두 국가 해법은 이미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당시부터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어 온 오래된 아이디어입니다. 이 방안은 한 땅 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를 병존하게 하여 평화를 이루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 전쟁의 격화 이후에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서방 국가, 그리고 아랍 연맹은 다시금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지지하며 이 문제를 국제적 과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93년 라빈 총리와 아라파트 의장은 미국의 중재 아래 오슬로 협정을 체결하여 두 국가 해법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995년 두 번째 협정이 추진되었으나 라빈 총리의 암살, 그리고 2001년 9·11 사건 이후 변화된 중동 정세 속에서 결국 그 시도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요엘 3장 1-2절은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훔고 그 땅을 나누는 행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곧 이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땅이며, 이를 사람의 정치적 계산으로 나누려는 시도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임을 보여줍니다.

*“보라 그 날 곧 내가 유대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 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

*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요엘 3:1-2*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심화될수록 두 국가 해법에 대한 국제적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결국 이스라엘 땅이 나누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의 큰 그림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적 현실과 국제 사회의 압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 중동 정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시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슥2:5) 원수의 소리를 잠잠케 하시길 기도합니다.

2. 며칠 전 이스라엘 최남단 도시 예일랏에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으로 2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테러, 가자 지구 전투, 그리고 험난한 인질 협상으로 이스라엘 사회는 여전히 신음하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 가을 절기를 보내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취시길 기도합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 결코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가 올 수 없음을 압니다. 참된 안식의 주인 되시는 샬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죄일을 앞두고 이 민족에게 마음 깊이 새겨 지기를 기도합니다.

## + 요셉의 창고 소식 및 가정 기도제목

1. 새해를 맞아 함께 섬기는 자비의 장막 교회에서 이웃 900가정에게 나누어 줄 선물 보따리를 함께 포장하였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영혼을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2. 구제 공홀 사역 단체인 러브153과 함께 동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알리야, 정착 지원, 한국어 강의 등 여러가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세요.

5. 저희의 비자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내년 2월이면 비자가 끝나게 됩니다. 현재 여러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항상 신실하시고 선택하셨던 주님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항상 신실하게 기도와 물질로 섬겨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저희도 이 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갈멜산-므깃도에서

\* 가정 후원: 하나은행 170-910173-11207 (신동훈)

\* 구제금융 사역 후원: 하나은행 170-910080-73307 (정승은)

3. 저희 가정은 지난 여름 한국에서 뜻하지 않게 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유환이의 다리 수술과 재활하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유환이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완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4. 또한 저희 가정에 한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 말에 에텐이가 독일에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계 60여 개국 선교사 자녀들이 모여 함께 신앙 생활하며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에텐이를 향한 선하신 계획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주세요. 또한 에텐이가 잘 적응하고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며, 영육 간에 큰 성장이 있기를 기도해주